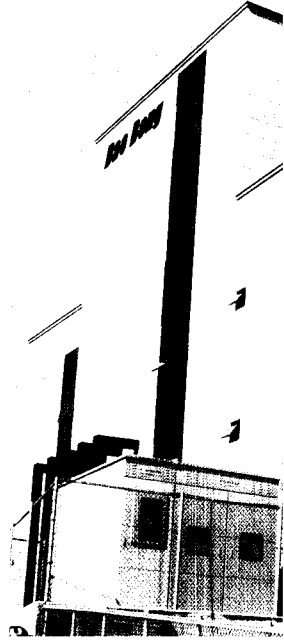




ITER 프로젝트 참여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대봉아크로텍(주)

1985년 대봉공업으로 세상에 첫발을 내딛은 대봉아크로텍(대표 장봉식)은 1992년 '크게 받들다'라는 뜻의 대봉(大奉)과 '최고의 기술력'이라는 아크로텍(Acro+Tec)의 두 단어를 결합시킨 '대봉아크로텍'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기존의 화공전문기업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거듭하는 울산의 대표기업이다. 특히 ITER 열차폐체 제작 수주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룬 대봉아크로텍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젊은 기업이다.



● 신성장동력 주도 사업을 이끄는 유망기업

석유화학 플랜트설비인 열 교환기와 압력용기를 주력제품으로 하는 대봉아크로텍은 지난 2007년 500만 달러 수출탑에 이어 해마다 100% 이상의 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5,000만 달러 수출탑에 도전하고 있는 탄탄한 성장세를 갖춘 기업이다.

창업 초기에는 국내업체를 통한 간접수출이 대부분이었으나 공격적 영업 전략을 시행해 지금은 중동,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 등 다양한 세계시장을 개척, 직수출이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수출 주력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신속한 납기와 가격경쟁력, 품질을 무기로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도 80%까지 높여 나가고 있다. 특히 얼마 전 ITER 사업의 열차폐체 설계 및 제작 부품을 수주하여 완벽한 성공을 향해가고 있는 전도유망한 기업이다.

특히 얼마 전 ITER 사업의 열차폐체 설계 및 제작을 수주하여 전도유망한 중소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ITER 사업에 참여하게 된 데는 대표이사님의 남다른 결단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력사업인 화공기기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는 중에도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판단과 더불어 신규사업 영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ITER라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 개월 전부터 별도로 구성된 ITER TF 팀 (Task Force team)이 ITER 관련 R&D에 참여한 적극적인 의지의 산물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무척이나 뿌듯합니다."

ITER 사업은 전 세계적인 초대형 프로젝트인지라 대기업과의 수주 경쟁에 대한 내외부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회사의 미래를 건 중대한 프로젝트라는 공감대는 확고했으며 ITER TF팀의 노력에 경영진의 전사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이제 대봉아크로텍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당당히 발돋움하였다.

● ITER 프로젝트 성공을 향한 열정과 집념

열차폐체를 수주하면서 대봉아크로텍이 얻게 된 가장 큰 효과는 자긍심과 동기부여다. 수주전쟁에서 거대한 경쟁업체들을 당당히 물리치는 과정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내외부적 자긍심을 얻었고 이를 통한 유무형의 가치 및 홍보효과는 산술적인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평가다.



현재 신설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는 산학연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내 및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형상의 제작과 가공 및 은도금 작업의 성공을 위한 R&D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또한 향후 끝없이 시도될 대체에너지원 개발사업 설비에 대한 경쟁에서도 ITER 열차폐체 설계 및 제작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발짝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열 교환기 등 석유화학플랜트산업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는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급적 기존 사업에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신사업에 연착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라는 사장님의 훈시에 힘입어 직원 모두가 열차폐체의 완벽한 설계 및 제작이라는 도전속에 압도적인 규모와 누구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실험적인 과제들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열정으로 뭉쳐 있는 대봉아크로텍은 끊임없는 도전과 일류를 향한 강한 의지로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서 NFRI와의 든든한 동행

신속한 납기와 가격경쟁력, 품질을 무기로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도 80%까지 높인 대봉아크로텍은 명실상부한 유망수출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제 대봉아크로텍은

그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ITER 열차폐체 제작의 완벽한 성공을 거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우리 대봉아크로텍은 끊임없는 기술투자과 인력양성으로 해외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며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머지않아 알찬 성과를 거둘 것이라 자신하는 대봉아크로텍. 함께 일하게 된 NFRI에 대해서도 기대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낸다.

“NFRI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로운 몰입이 가득한 연구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명감과 프로의식을 가지고 한계를 두지 않는 자유로운, 또 무서울 정도의 집중과 몰입이 우리의 작업에도 많은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FEC 2010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일반인들도 미래에너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다채로운 노력을 기울이는 NFRI의 모습에서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장함 또한 느껴집니다. NFRI의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머지않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고 그 과정에 우리 대봉아크로텍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한계를 모르는 기업, 무한한 열정을 가진 기업 대봉아크로텍, ITER 열차폐체의 완벽한 성공이라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날갯짓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ITER 프로젝트의 아름다운 성공이 보이는 듯하다. 앞으로도 NFRI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NFRI